제 77호 개별 지도하기 2

지난 호에는 3A technology-based 강의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low-tech 개별지도 방법을 소개합니다.

가끔 교수님께서 감탄할 정도로 특출 나게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 문제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답을 한 자도 빼거나 더할 필요 없을 정도로 명료하고 간결하게 써낸 시험 답안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 이상의 실력이 기특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숙함에 기가 질리기도 합니다. 이런 우수한 학생은 개별지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개별지도 방법은:

(1) 퀴즈나 시험에 어려운 문제를 추가로 내어 보너스 점수를 얻게 한다.

우수한 학생은 시험을 미리 끝내고 시험장을 떠나거나 시험지를 두 번 세 번씩 재검토하면서 남은 시간을 낭비하기 일쑤입니다. 시험장을 빨리 떠나는 학생이 있으면 다른 학생한테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문제를 내면 우수한 학생들은 남은 시간을 유용하게 쓰게 될뿐더러 자신의 능력 한계까지 도전하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3) 가끔 두 종류의 숙제 (평균 학생들을 위한 평범한 숙제와 우수한 학생을 겨냥한 도전적인 숙제)를 출제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모든 학생들이 평범한 문제를 택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에게 좀 더 높은 목표가 제시되었다는 점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평균 기준에 만족하거나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기 때문입니다.

(3) 프로젝트의 주제나 범위를 학생과 상담해서 같이 정한다.

프로젝트의 주제나 범위를 교수님과 상담해서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미리 모든 학생들에게 줘야 편견이라는 "누명'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정할 경우 기대치가 올라간다는 조건을 미리 덧붙여서 극소수의 (우수한) 학생들만 선택하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학생은 교수님과 상의해서 정한 프로젝트에 더 많은 열정을 쏟고 보다 좋은

결과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4) 시험을 특별히 잘 본 소수의 학생에게 졸업 후 진로를 같이 고려해보자고 적은 메모를 시험지와 함께 건네준다.

학생은 교수님으로부터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도록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학생은 스스로 발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약간의 격려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개별지도 방법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수님께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지만 정신적 여유는 더욱 더 없습니다. 강의와 학생 수는 많고, 연구하랴, 잡무 보랴, 위원회 참석하랴. 요구 사항이 왜 그리 정신없이 많은지...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좀 돌봐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저는 다음 호에 소개될 세 번째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을 위한 방법이지만 우수한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잔소리 코너>>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콩나물 국밥"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국물은 한 통속에서 꺼내되 국그릇에 양념은 따로 쳐서 각자 입맛에 맞는 맛을 내듯이 강의도 강의실에서는 학생들 평균 수준에 맞추되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써서 약간의 개별지도가 가능토록 한다는 뜻이지요.

<<편집 코너>>

시간을 조금 들이지만 개별지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위에 소개된 네 가지 방법 이외에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아시거나 쓰시고 계십니까? 제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벽, 2000